

설교후기도 .....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지으신 주님, 우리 가정 또한 빛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 가정이 보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찬송 435장 ..... 다 같이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신년감사예배**는 낡은 해를 과거로 돌리고 새해를 여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년에 낡은 시간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년예배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 앉습니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1년 설 가정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기:12)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 304장 ..... 다 같 이**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 가 족 대 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5장 16절 ..... 말 은 이**  
**잠언 3장 6절**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설 교 말 씀 ..... 은혜로 사는 안에 ..... 말 은 이**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1년 동안 우리 삶의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등불도 삶의 저 바닥에 숨겨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가장 앞선 자리에 두어야 길도 밝히고 자신도 밝힐 수 있는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삶의 앞자리에 두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빛으로 지음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앞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실은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던 이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요단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이었고 각종 병과 아픔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쩌하랴? 빛이 숨겨지면 어쩌하랴?"하시며 그들의 참 가치를 세워 주십니다.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나와 세상을 밝히고, 주님은 그 삶을 좋아 하십니다. 2021년 귀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빛이며, 우리의 선한 삶이 나와 세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일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둘째,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6절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이야기가 담긴 보고(寶庫)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허튼 일이 없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주님과 동행이고 그 삶을 귀히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할 때 삶은 곧아집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잡기를 바라십니다. 문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삶이 곧아지고 온전해 집니다.

귀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나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랑과 수고를 타고 온 은혜입니다. 그 귀한 사랑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삶이 펼쳐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